

# 왜 추방인가?

## 1 부

이번 수요일 밤엔 연례 전통 절기인 티샤 베타브 (넷째 달의 아홉째 날)가 시작됩니다 (렘 52:6). 이 날은 유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여러 비극을 기억하는 날로, 그 중엔 제 1 성전과 제 2 성전의 파괴, 그리고 1492년 스페인으로부터의 추방이 있습니다.

추방 [처음엔 바빌론으로 (주전 586년), 그 다음엔 더 크게 (주후 70년~1948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성경을 깨닫는 데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습니다. 유대 신비주의에서 추방의 의미는 예슈아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 신학과 유사합니다. 성경적으로,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슈아의 생애와 대응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 (마 2:15), 40년 (일)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 (마 4:1),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 (마 26-27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은 메시아의 영혼이 십자가 죽음으로 육체를 떠난 것과 대응됩니다. [유대 민족의 고토 귀환은 예슈아의 부활과 대응되는 것이고요 (겔 37:12)].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셨고, 성전의 파괴와 대 추방이 코 앞에 다가왔음을 인식하셨습니다.

마 23:37-39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메시아의 역할은 이 나라를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배척당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흩어짐은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요, 다시 모인 것은 그 분을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 2 성전의 파괴와 제 2의 유수를 예견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제 1 성전의 파괴와 최초의 유수를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눅 21:20, 24 □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슈아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궁극적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슈아께서 예레미야에 비견되신 것입니다 (마 16:14). 예슈아께서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당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전하신 히브리 선지자셨습니다.

추방의 의미는 예슈아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17 □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이 왔고, 다윗을 통해 왕국이 임했으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추방으로부터 구속하는 역할입니다.

예슈아의 제자들은 그 분께 여쭙습니다.

행 1:6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

예슈아께서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사실은, 그 사실이 현재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만큼이나, 초대 제자들에게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개인적 구원과 세계적 구속 모두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개인적 구원의 주축입니다. 추방과 다시 모임은 세계적 구속의 주축인 것입니다.

예슈아와 이스라엘 간의 연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의 기초에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추방과 귀환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민족적 구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슈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구원에 가려져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속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 민족의 최악은 70년간의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2,000 년에 가깝게 추방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을 거부함으로 첫째 추방이 있었던 것처럼, 예슈아와 그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둘째 추방이 임한 것입니다.

눅 19:41-44 "[예슈아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뵈었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

예슈아를 거부한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임을 보지 못함으로 반기독교의 영을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예슈아께서 우셨던 것처럼 울지 못하는 것은 반유대주의 영을 인한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이 문제가 유대 민족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롬 11:25 □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고 추방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 나라들에게 총만히 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방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엡 3:3,6 □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신비는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티샤 베아브에 해당 하는 주간 토라 할당 분에는 신 4:27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추방은 실제보다 천 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미리 정하신 계획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2 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추방과 고난의 랍비 유대교적, 예언적, 종말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